

팩트체크 + 보고서		 <small>The Media Network for Justice</small>
특별판	발행일: 2020년 3월 2일(월)	
연락처	(02) 741-7662	www.medianetwork.kr FAX (02) 741-7663
에디터	황우섭 (E-mail : mirifica@naver.com)	

2020 총선 방송보도 분석③

- 분석대상 : 9개 방송사 TV 메인뉴스 / 분석기간 : 2.23~2.29 -

요 약 문

2월 23일(일)부터 2월 29일(토)까지 9개 방송사 TV 메인뉴스에서 보도된 이낙연 vs 황교안, 각 정당 공천, 더불어민주당 비례 정당 창당 움직임, 코로나19 관련 발언 논란 관련 총 42건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정당공천이 17건, 코로나19 발언 관련 논란이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vs 황교안 기사의 경우 전체 4개 기사 중 황교안 후보가 4건, 이낙연 후보는 1건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황교안 후보 관련 기사의 경우 '긴장감', '몰아세우기', '강경발언' 등 갈등의 주요 주체로 황교안 후보를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의 대상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공감과 회피'의 주체로 묘사하고 있었다.

이낙연 후보 관련 기사의 경우 종로구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유일했으나 기본적인 여론조사 보도지침을 지키고는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기존 선거 지지율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 중 미래통합당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여론의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당 공천 관련 기사의 경우 정당별 언급 수는 비슷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중진탈락 관련 기사가 미래통합당의 경우 새로운 후보 공천이 주를 차지했으며 두 정당 모두 등장하는 경우에는 대결구도가 기사 내용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관련 기사의 경우 당의 공천관련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미래통합당 관련 기사의 경우 당 내외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정당 창당 관련 기사의 경우 전체 기사는 6건으로 많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용 정당 창당 간 명확한 경계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에서 창당을 반대하는 의견을 부각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과거 미래한국당 창당을 예를 들어 공격하는 프레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경우 비례정당 창당 자체를 비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비판과 공격 등을 통해 이슈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요 약 문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과거 미래한국당 창당 관련 기사들이 비판적인 메시지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례용 정당과 선을 긋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에 힘을 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박능후 장관, 홍익표 대변인,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 인한 논란 기사의 경우 홍익표 대변인의 '대구 봉쇄' 발언이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이를 비판하는 것으로 메시지가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홍익표 대변인과 유시민 작가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이러한 부분들이 희석되고 오히려 두 정당 간 단순한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의 비판 맥락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갈등의 주요 원인이 해명하고 방어하는 쪽이 아닌 비판자에게 전가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개요

본 총선 방송보도 분석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방송뉴스를 중심으로 총선 관련 뉴스를 분석하여 총선 관련 방송보도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분석대상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 등 9개 방송사 TV 메인뉴스의 총선 관련 기사이다. 보도전문 채널의 경우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메인뉴스가 동일한 시간대에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의 기사가 홈페이지, 포털 등에 정리되어 있지 않아 포털(네이버)에 각 방송사 메인뉴스와 함께 게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분석기간은 2월 23일(일)부터 2월 29일(토)까지 일주일 동안 각 방송사 TV 메인뉴스에서 보도된 이낙연과 황교안 후보 관련 기사, 정당 공천, 비례 민주당, 코로나19 관련 홍익표/박능후/유시민 발언 관련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코로나19 관련 기타 기사로 인해 관련 기사는 총 42건으로 많지 않았다.

[표 1] 방송사 별 기사 건수

방송사		건 수	비중
지상파	KBS	6	14.3%
	MBC	5	11.9%
	SBS	3	7.1%
보도전문	연합뉴스TV	3	7.1%
	YTN	7	16.7%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9	21.4%
	JTBC	3	7.1%
	채널A	4	9.5%
	MBN	2	4.8%
합계		42	100.0%

주요 이슈별로는 이낙연 vs 황교안 관련기사 4건, 정당공천 17건, 비례민주당 6건, 코로나19관련 기사 15건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이슈별 기사 건 수

	N	비중
이낙연 vs 황교안	4	9.5%
정당공천	17	40.5%
비례 민주당	6	14.3%
코로나19 발언 관련	15	35.7%
Total	42	100.0%

2. 이낙연 vS 황교안

1) 기사 내 언급 수

종로 선거구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에 대한 전체 4개 기사에서 각 후보의 등장 수는 황교안 후보 4건, 이낙연 후보 1건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후보가 등장하는 기사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발표 1건이었으며 황교안 후보의 경우 여론조사 발표, 대구방문, 청와대 방문 강경발언, 종로 공천 확정이 주요 기사 내용이었다.

[표 3] 후보 별 기사 내 언급 수

	N	Percent
이낙연	1	20.0%
황교안	4	80.0%
합계	5	100.0%

황교안 후보가 등장하는 기사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종로 공천 기사를 제외하면 절반에 해당하는 2건의 기사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대응 실패를 비판하는 내용이 차지하고 있었다. 연합뉴스TV의 기사를 중심으로 특히 연합뉴스TV 기사의 경우 '긴장감', '일방적 몰아세우기', '강경발언' 등의 주체로 황교안 후보가 묘사되고 있었으며 공격의 대상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공감과 회피'의 주체로 묘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후보 관련 기사의 경우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자체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따라 기본적인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 있었다. 그러나 별도로 공개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응답 대상이 스스로 밝힌 정치적 성향의 경우 진보 135명 보수 129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현재 지지정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208명, 미래통합당 12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41.6%, 미래통합당 지지자가 24.0%로 나타났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52.6%,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이 39.7%였던 부분을 감안하면 응답자 중 미래통합당의 지지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2) 기사길이 및 보도 순서

후보별 기사 길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포함된 1개 기사의 길이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여론조사 발표, 두 후보 모두를 다룬 기사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긴 기사 길이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표 4] 후보별 평균 기사 길이

	N	기사 길이(초)
이낙연	1	124
황교안	4	112.75
합계	5	118.38

보도 순서의 경우 황교안 후보가 포함된 기사의 순서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낙연 후보의 경우 여론조사 발표 1건 밖에 없으며 황교안 후보 관련 기사의 경우 언론사별로 다수 존재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 후보별 보도 기사 평균 보도 순서

	N	보도 순서
이낙연	1	19
황교안	4	16.75
합계	5	17.88

3) 주요 프레임

후보별 주요 프레임의 경우 황교안 후보나 미래통합당의 공격을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교안 후보측의 피격 프레임의 경우 먼저 주장했던 내용에 대한 이낙연 후보 또는 민주당 측의 반박성 공격과 주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황교안 후보의 경우 기사 속에서 주로 ‘공격자’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주장보다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많다는 점은 기사 자체의 메시지 형식이 중립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표 6] 후보별 주요 프레임

	주장	공격	피격	무프레임	합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1 25.0%	1 25.0%	0 0.0%	2 50.0%	4 100.0%
황교안 (미래통합당)	0 0.0%	2 25.0%	2 25.0%	4 50.0%	8 100.0%

3. 정당 공천

1) 기사 내 정당 언급 수

정당공천 관련 기사의 경우 총 17건으로 각 정당의 새로운 인물 공천, 기존 인물의 공천 탈락, 여야 대결 구도 등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언급 수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3건, 미래통합당 12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사들의 경우 동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의 대결구도 관련 기사가 있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중진탈락, 미래통합당의 경우 새로운 인물 공천 소식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정당별 기사 내 언급 수

	빈도	비중(%)
더불어민주당	13	52.0%
미래통합당	12	48.0%
합계	25	100.0%

2) 기사 길이 및 보도 순서

정당별 평균 기사 길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언급된 기사 길이 108.8초로 미래통합당에 비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다루어지는 기사가 미래통합당에 비해 많은 부분이 기사 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표 8] 정당별 평균 기사 길이

	N	기사 길이(초)
더불어민주당	13	108.8
미래통합당	12	120.7
합계	25	114.8

보도 순서의 경우 미래통합당이 언급되는 기사의 보도 순서가 소폭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단독 기사의 경우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 기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표 9] 정당별 평균 보도 순서

	N	보도순서
더불어민주당	13	24.0
미래통합당	12	22.8
합계	25	23.4

3) 주요 프레임

공천을 보도하는 주요 프레임의 경우 무프레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주장이 2건, 피격 1건이었으나 미래통합당의 경우 피격 1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시지 형태는 모두 독립적인 기사였다.

더불어민주당 ‘주장’의 경우 모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주장을 담고 있었으며 검찰에 대한 비판과 선거운동에 대한 의지로 메시지가 구성되었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경우 이연주 의원의 부산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비판이 피격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황 자체를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래통합당 관련 소식의 경우 내외부에서 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0] 정당별 주요 프레임

	주장	피격	무프레임	합계
더불어민주당	2	1	18	21
	9.5%	4.8%	85.7%	100.0%
미래통합당	0	1	19	20
	0.0%	5.0%	95.0%	100.0%

4) 기사 소재

기사 소재의 경우 판세를 다룬 기사는 1건에 불과했으나 기사 내용과 달리 헤드라인의 경우 연합뉴스TV의 ‘장군에 명군...수도권 전략이 맞불공천 불꽃’, TV조선의 ‘수도권 공천 속속 확정...한눈에 보는 격전지 대진표’와 같이 대결구도를 의미하는 헤드라인들이 더 많았다. 그 외에는 정당의 단순 공천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주요 기사 소재 비중

	N	보도순서
판세	1	5.9%
정당	11	64.7%
후보_능력	1	5.9%
후보_도덕성	2	11.8%
후보_이미지	2	11.8%
합계	17	100.0%

4. 비례 민주당

1) 기사 내 정당 언급 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정당 창당에 대한 기사의 경우 총 6건으로 갈등적 상황보다 표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외부에서 비례용 자매정당 창당을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정당 창당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언급되고 있었으며 미래통합당이 언급되는 경우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한국당 창당을 비판했던 내용과 함께 언급되고 있었다.

[표 12] 정당별 기사 내 언급 수

	빈도	비중(%)
더불어민주당	6	75.0%
미래통합당	2	25.0%
합계	8	100.0%

2) 기사 길이 및 보도 순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정당 창당 관련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다루는 기사 길이가 338.1초로 미래통합당 193.5초보다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YTN의 대담 형식 기사인 ‘나이트포커스’가 10분이 넘는 분량을 할애해 관련 사안을 다룬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표 13] 정당별 평균 기사 길이

	N	기사 길이(초)
더불어민주당	6	338.1
미래통합당	2	193.5
합계	8	265.8

평균 보도 순서의 경우도 YTN의 ‘나이트포커스’가 세 번째로 보도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언급된 기사의 보도 순서가 미래통합당이 언급된 기사 순서에 비해 앞서는 결과를 낳았다.

[표 14] 정당별 평균 보도 순서

	N	보도순서
더불어민주당	6	21.2
미래통합당	2	26.5
합계	8	23.8

3) 주요 프레임

정당별 주요 프레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 1건, 공격 2건, 피격 4건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공격 2건, 피격 2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비례용 정당 창당에 대한 비판이 주요 피격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공격의 경우 과거 미래한국당 창당 관련 비판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프레임의 경우도 비례용 정당에 대한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한 비판이 주요 내용으로 나타났다.

이를 피상적으로 살펴보면 양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자매 정당 창당에 대해 서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주로 당 내에서 비례용 정당 창당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주요 공격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미래한국당이다.

과거 언론의 미래한국당 관련 기사가 비판적인 메시지형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감안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동일한 사안의 경우 당 외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중립적인 형식을 지니고 있고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언론사들은 서로 다른 메시지 구성 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내 이를 반대하는 의견들을 부각하며 비례정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관계에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표 15] 정당별 주요 프레임

	주장	공격	피격	무프레임	합계
더불어민주당	1	2	4	2	9
	11.1%	22.2%	44.4%	22.2%	100.0%
미래통합당	0	2	2	1	5
	0.0%	40.0%	40.0%	20.0%	100.0%
합계	1	4	6	3	14

6. 코로나19 관련 발언

1) 기사 내 정당 언급 수

코로나 19관련 발언으로 인한 논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13건으로 미래통합당 3건에 비해 훨씬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익표 대변인의 '대구 봉쇄' 발언이 전체 15개 기사 내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 외 기사의 경우 박능후 장관과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차지했으며 대부분 여당측 인사들의 발언으로 인한 논란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표 16] 정당별 기사 내 언급 수

	빈도	비중(%)
더불어민주당	13	81.2%
미래통합당	3	18.8%
합계	16	100.0%

2) 기사 길이 및 보도 순서

기사 길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이 언급된 기사들이 15초 가량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양 정당 간 해명이나 비판을 모두 다루는 기사가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17] 정당별 평균 기사 길이

	N	기사 길이(초)
더불어민주당	13	103.8
미래통합당	3	118.3
합계	16	111.1

반면 보도 순서의 경우 미래통합당이 언급된 가사의 보도 순서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래통합당의 비판을 다룬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순서가 빠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표 18] 정당별 평균 보도 순서

	N	보도순서
더불어민주당	6	18.3
미래통합당	2	13.3
합계	8	15.8

3) 주요 프레임

주요 프레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이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피격 프레임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 대상의 메시지가 구성하는 주요 프레임 내용은 비판에 대한 방어와 당 내 홍익표 대변인에 대한 비판으로 구성되는 공격 프레임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경우 박능후 장관과 홍익표 대변인에 대한 비판이 주요 공격 프레임을 구성했으며 방어와 피격의 경우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주관 방송사인 공영방송사를 제외하더라도 재난 시 방송사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시민들에게 사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 관련 보도의 경우 잘못된 발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나 대부분의 언론사와 기사들이 발언을 둘러싼 두 정당 간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래통합당의 비판의 맥락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으며 이는 갈등의 주요 원인을 비판을 해명하고 방어하는 쪽이 아닌 비판자에게 전가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9] 정당별 주요 프레임

	주장	방어	공격	피격	합계
더불어민주당	0	3	2	10	15
	0.0%	20.0%	13.3%	66.7%	
미래통합당	1	1	3	2	7
	14.3%	14.3%	42.9%	28.6%	
합계	1	4	5	12	22

끝.

※참고 : 이 보고서는 미디어연대의 분석자료입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인용시 '미디어연대 자료'임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에디터 책임 하에 분석된 내용으로 미디어연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후원 : 저희 미디어연대와 함께 해주십시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미디어연대 <팩트체크+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후원은 미디어연대 홈페이지 (www.medianetwork.kr)에서 '후원하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